

재발성 및 전이성 대장암에서 Irinotecan, 5-FU, Leucovorin 복합화학요법의 효과

*김지현, 김도연, 이세훈, 김태유, 허대석, 방영주, 김노경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목적: 재발성 및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에 있어 5-FU/leucovorin 복합화학요법이 표준 치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약 20%의 반응율을 보여 그 예후가 불량하다. Irinotecan은 새로운 topoisomerase inhibitor로, 각종 임상연구에서 5-FU 와 병합 투여시 5-FU/leucovorin 요법에 비하여 우월한 반응율 (39%) 및 생존율 (14.8개월) 이 보고되었다. 저자들은 재발성 및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사용된 irinotecan, 5-FU, leucovorin 복합화학요법의 효과와 독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19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3월 1일까지 재발 및 전이가 확인된 대장 및 직장암 환자 중 보조 화학 요법을 제외한 과거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력이 없고, 계속 가능한 병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투여 방법은 Irinotecan 180mg/m² 2시간 정주(D1), leucovorin 200mg/m² 2시간 정주 (D1,2), 5-FU 400mg/m² 정주(D1,2), 5-FU 600mg/m² 22시간 지속정주 (D1-2)를 2주마다 반복하였다.

성적: 대상환자는 총 19명으로 남자가 14명, 여자가 5명이었다. 환자의 중앙연령은 58세 (범위: 17-72)였고,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ECOG 기준으로 0-1이 15명, 2가 4명이었다. 과거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가 10명으로, 모두 5-FU/leucovorin 5일 요법을 시행 받았다. 총 131회의 항암제가 투여되었고, 그 중앙값은 6회 (4-12)였다. 치료 효과는 18명의 환자에서 평가 가능하였는데, 완전 관해는 없었고, 부분관해는 6명 (31.6%), 불변은 6명 (31.6%), 진행은 6명 (31.6%)에서 있었다. 관해 지속기간은 짧은 추적기간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. 혈액학적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증이 1도 25회 (19.1%), 2도 18회 (13.7%), 3도 4회 (3.1%) 발생하였고 1도의 혈소판 감소증이 3회 (2.3%) 에서 관찰되었다.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NCI 독성기준 2도 이상의 오심과 구토, 설사가 각각 8 (6.1%), 8 (6.1%), 4 (3.1%)례에서 발생하였고 감염에 인한 사망이 1례 발생하였다.

결론: 재발성 및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irinotecan, 5-FU, leucovorin 복합 항암화학요법은 비교적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그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하여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이용한 항문편평상피암의 치료성적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, 치료방사선과학 교실², 외과학교실³

이대호^{1*}, 김인호¹, 송헌호¹, 정주영¹, 김도연¹, 김지현¹, 이세훈¹, 김태유¹, 허대석¹, 방영주¹, 하성환², 박재갑³, 김노경¹

목적: 항문에서 발생한 편평상피(cloacogenic암포함)암의 치료는 과거 수술이 원칙이었으나, 항문보존을 위한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가 현재는 주된 치료이며 수술은 이러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항문편평상피암의 임상적 특성과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치료성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저자들은 1991년 3월부터 1월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항문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된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적 특성과 치료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결과: 환자의 특성은 중앙연령은 58세 (37-78세)이며 남:녀는 각각 15:14명이었다. 병리조직형은 편평상피암 20명 (69%) 및 cloacogenic암이 9명 (31%)이었으며, AJCC에 의한 병기는 각각 I/II/IIIa/IIIb/IV 6명/12명/2명/7명/2명이었다. 치료방법은 전보조화학요법(5FU/CCDP:21명, 5FU/Mitomycin:2명) 및 방사선 치료 23명, 수술 후 방사선치료 3명이었으며 1명의 환자는 치료를 거부하였고 진단당시 전이소견을 보인 2명은 고식적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. 중앙관찰기간은 39개월이었으며 5년 생존율은 78%이었다.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은 관해율 91%(완전관해율 20%)이었으며 전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후 관해율은 92%(완전관해 88 %)이었다. 재발은 27%에서 발생하였으며, 재발부위는 국소재발 2명, 림프절 4명, 간 1명으로, 5년 무병생존율은 66%이었다. 병의 진행으로 Miles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3명 (재발 후 2명)이었으며, 5년 무장투생존율은 80%이었다.

결론: 항문편평상피암은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그러므로 장기보존을 고려한 표준치료로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, 수술은 일부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. 그러나,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전보조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와 보조적 화학요법의 역할 등 최적의 치료에 대한 보다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